

SL제 수요 10만톤 달해

생산능력 22만톤 94년 본격 시판 ... 수요급증 전망

바닥용 미장재료로 사용되는 SL제(Self-Leveli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과 반죽하여 바닥에 흘려 뿌리면 유동되어 수평면을 형성, 기존의 건축공사장에서 획기적인 시간감축 및 노동력절감을 가져오는 SL제는 그동안 국내기업들의 꾸준한 연구로 94년부터 본격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일부백화점과 고급건축물 주차장 등에 약 10만여톤이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아파트 및 상가 등에 사용되면 수요량은 큰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SL제 생산능력 (단위 : M/T)	
구 분	수 량
쌍 용 양 회	60,000
금 강	50,000
유 니 온	30,000
건 화	30,000
벽 산	25,000
타스유기화학	10,000
기 타	20,000
합 계	225,000

벽산은 핀란드 파텍과 기술제휴로 지난 9년간의 연구를 통해 최근 2~3년간 1000여톤을 시공 94년부터 본격시판할 예정이며, 쌍용양회도 300~400톤의 시공을 거쳐 94년부터 본격 시판할 예정이다.

또 유니온은 3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현재 시판중인데 강도는 좋은 반면 유연성과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SL제 생산능력은 쌍용양회가 복합라인을 포함 6만톤, 금강 5만톤, 유니온 3만톤, 벽산 2만5000톤 등 22만5000톤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공급 과잉도 예상된다.

현재 SL제는 독일과 핀란드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독일의 PCI 제품이 40% 정도에 이르는데 PCI는 국내에서 92년에는 3만2000㎡ 93년 상반기에는 5만7000㎡를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L제 가격은 국산은 KG당 400~500원선에 수입품은 700~8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SL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도의 기술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비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멘트관련 기업에서는 향후 최고의 부가가치 제품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SL제에 사용되는 원료로는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고유동화제, 내마모성 및 유연성을 유지하는 분말수지, 소포제, 점도를 유지하는 셀룰로즈에테르 등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3/11/1>